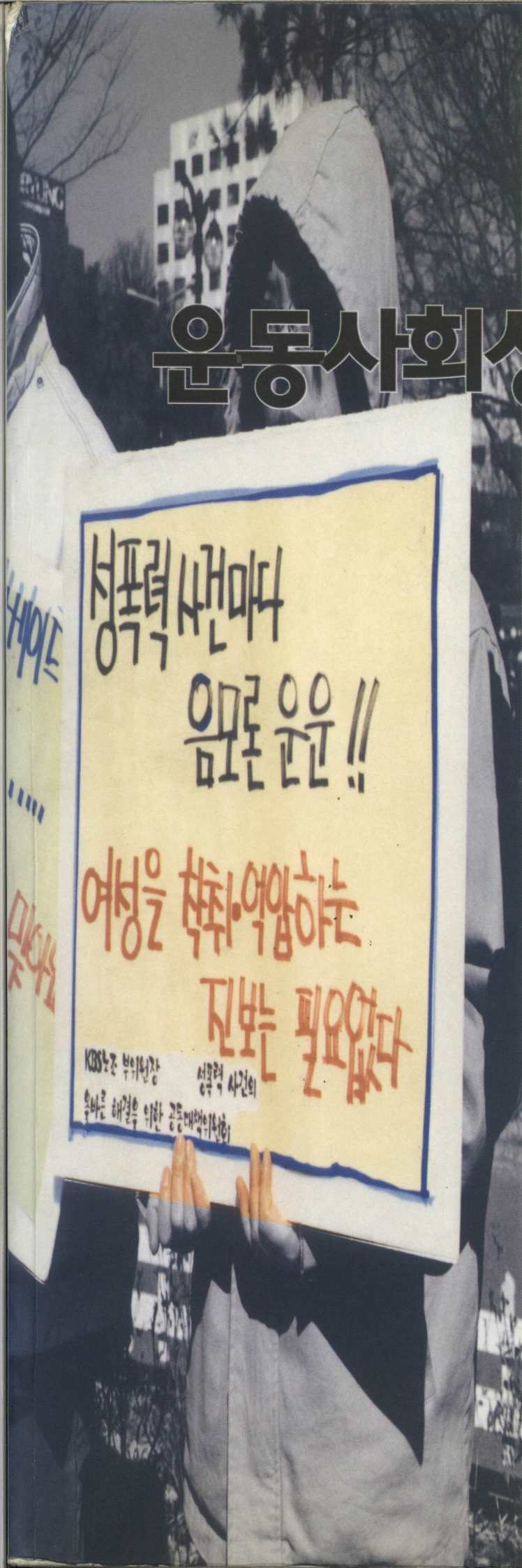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 활동백서

2000.7~2003.10

성폭력 사건마다

임의로 은연 !!

여성을 학대·억압하는

진보는 필요없다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에

속이는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백서를 발간하며....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평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운동 조직 내에서도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해왔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여성 활동가들의 모임에서 출발한다. 100인위는 운동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바꾸어 내기 위한 시작으로, 그리고 여성들의 절실한 생존권 문제로서 내부의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00인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간다. 운동의 대의를 위한다는 조직보위의 논리로 수많은 여성들이 겪었지만 결코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성폭력 문제는 지금도 피해자 여성들이 생존자로 설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운동에서 여성들을 배제하는 기체로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이중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또한 사회단체들은 내부에 자치규약을 만들기도 했으며, 많은 활동가들은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00인위의 활동이 이러한 구조와 성폭력이 행해질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열려있는 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0인위를 준비하고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던 때부터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동사회의 냉담한 반응에 놀라고, 성적 자유주의자들과 논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고, 법정투쟁을 진행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백서로 펴내고자 한다.

백서는 다음의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100인위 활동소개>는 결성부터 현재까지의 100인위 활동을 정리하였다.
2. <100인위가 공개한 성폭력 사건들>에서는 100인위가 공개했던 개별 사건들에 대해 1)사건공개문 안 2)실명공개 이후 사건의 진행상황 3)기타 자료 등으로 정리하였다.
3. <100인위 발표글>은 100인위가 제출했던 성명서, 입장글과 각 단체 및 개인들에게 보냈던 제안서, 잡지에 투고했던 글들을 모았다.
4. <100인위 관련 외부글 및 기사모음>은 신문, TV의 100인위 관련 뉴스와 잡지의 기사, 100인위를 주제로 한 잡지의 투고글을 모았다.
5. 끝으로 <100인위 활동을 마무리하며>는 몇몇 100인위 회원들의 100인위 활동 평가에 관한 글을 실었다. 이 글들은 100인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회원 개개인들의 의견이므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고 논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차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